

광주시, '경력단절 여성지원 사업' 전국 으뜸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평가 7개 특·광역시 유일 우수기관 선정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향상 높은 평가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을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한 '2022년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사업 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

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새일센터 사업평가'는 각 지역 새일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취·창업률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평가로 159개 새일

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는 취·창업목표 달성률, 고용유지율, 구직 등록 건수,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 연계 및 사후관리서비스, 지역사회 연계·협력, 고객만족도 조사 등 23개 항목 45개 지표를 평가한다. 현재 5개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는 지역내 경력단절여성들의 능력개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향상(2016년 48.0%→2022년 51.6%)

에 기여한 점과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제공, 여성 구직자와 구인기업 일자리 박람회 추진 등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과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순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경력에 단절되지 않도록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기회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추석 맞아 곳곳에 온정 돌봄 이웃·사회복지시설 찾아

광주 광산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지역 곳곳에 온기를 전한다. 광산구 전 부서, 전 공직자가 참여해 지난 11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돌봄 이웃 6060세대, 사회복지시설 53곳을 대상으로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위문을 나간다. 광산구 모든 부서에서는 장애인, 외국인주민,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생필품, 과일, 참치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광산구 21개 동은 민간 후원을 연계해 돌봄 이웃 3186세대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마음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다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나눔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가뭄·폭우 등 기후위기대응 위한 '물관리' 필요"

김영선 광산구의원, 빗물 저장고·저류지 설치 방안 마련해야

김영선 광산구의원(민주, 수완동·하남동·임곡동·사진)은 지난 11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물관리 대응 및 체계적인 상습 침수지역 관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선 의원은 "올 여름 유례없는 폭우와 연이은 태풍이 몰아쳤고 장수천과 풍영정천, 황룡강 다리는 범람 직전이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빗물을 머금은 녹지는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으로 점점 사라져가면서 폭우 시 빗물이 순식간에 늘어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며 "지역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 등 저수지 준설로 빗물을 더 저장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우고 하천의 물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뭄·폭우 대책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빗물 저장고·저류지 설치

등의 물관리 계획과 시설 설치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1년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산정지구' 지역은 도로와 배수로를 새롭게 설치했지만, 도로는 기존 부지보다 높게 설치되고 배수로는 우수처리용량이 부족해 폭우 시 수해 발생함에도 공공주택지구라는 이유로 복구가 제때 없다"며 "개발이 몇 년이 걸

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도 재해로 인한 복구 조치는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가뭄과 폭우에 맞서 물을 더 보관할 수 있는 물관리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의 범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광산구는 시민에게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수완동은 지난 9일 주민 스스로 기획한 화합 대동 한마당인 '제10회 수완어울림축제'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개강한 파크골프지도자(2급) 양성 과정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민 화합·대동의 장' 수완어울림축제 성료

마을의제 선정 주민총회도 광주 광산구 수완동은 "지난 9일 주민 스스로 기획한 화합·대동 한마당인 '제10회 수완어울림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수완동민의날 추진위원회가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자치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수완동 개성 13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수완지구 원당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야외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박병구 광산구청장,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과 지역 주민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주민 8만 명의 '거대 동'으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온 수완동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울림축제와 연계해 내년 수완동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총회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김희중 수완동민의날 추진위원장은 "4년 만에 주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수완동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마음껏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과정 개강

자격증 취득 희망자 15명 참여 광주 광산구는 12일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지도자(2급) 양성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파크골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파크골프 자격증(2급) 취득 희망자 15명이 참여한다. 10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시간씩 10회 과정으로 운영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파크골프 이론과 실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파크골프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대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은 호남 최대이자 광주 최초 36홀로 조성됐으며, 지난 4월에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전국대회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공인 인증을 받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 상생 노사문화 지원 노사갈등 예방 프로그램 추진

광주 광산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하는 '노사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일터 혁신 사업 중 하나다.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 투명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조직 내 갈등 조정이 필요한 기업, 갈등 발생 경험이 있는 기업, 노사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갈등 현황을 조사·분석, 구성원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모의 단체교섭, 역할 연기를 통한 사례 실습 등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갈등 지도 공동 연수(워크숍)를 진행해 상생·협력 노사관계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지속성장일자리과 노동지원팀(062-960-8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갈등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이번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